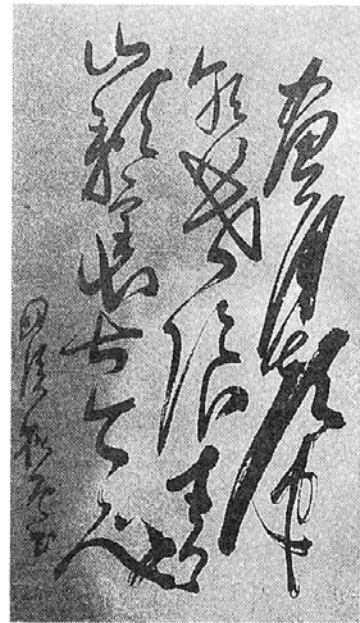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성불의 뿌리 심는것

으나 대승님이 일본유학을 위해 1백50원을 마련해 주어서 유학길에 올라 경도의 임제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1백50원을 아껴 썼지만 1년이 지나니 나는 알지 못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어디에 손 벌릴 곳도 없었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였으니 승복을 입은 것이 그 시절의 가난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돈이 생겼다. 일을 해야 했기에 조선소에도 나가 보았고 제철소에도 가보았습니다. 철도노동도 해 보았고 타이어 재생공장에서도 일을 했다. 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여러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학비를 댔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아닌 고생 때문이라.



귀국한 이후로는 정신없이 살아야 했다. 해방된 조국이었던 남승인 나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배운 것이 아깝다는 소리도 들어야 했다. 길의 끝에 새길 이 있듯 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을만큼 척박한 땅은 아니었던지라 장원의 국화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감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모두가 시절인연이요 불은 아니었겠는가. 국화중고등학교는 통

“우리는 어제에서 와서 내일로 가고있다
운회의 바퀴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공덕으로 승화시켜 여래를 체득하자”

은사 연운스님의 유일한 유품인 사명대사의 친필휘호 '龍角聲中朝暮浪 青山影裏古今心 (회각성중조모랑 청산영리고금심)' 화각소리 따라 물결 출렁이지만, 푸른 산 그림자 속에 옛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들어있다. 아용스님은 "세상은 변해가도 마음지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모자랄 것이지만 굳이 들춰보고 싶지 않은 과거사입니다. 자유당말기에 지금 사는 승복사를 지어 관악산의 한줄기를 의지하게 되었고 강원과 유학 이후 이렇다하게 공부에 매진치 못했던 게으름을 발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늦지는 않아도 서울이 원히 내려다 보이는 승복사의 텅 빈 가히승지(勝地)라 할만합니다. 이곳에

나졌는가, 그래서 나는 법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원력을 세우고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생의 인연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운회의 현장에서 선망영가(先亡靈駕)를 천도(薦度)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다 욕도운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에서 짓는 인연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 귀한 인연을 성불의 착실한 뿌리로 심기 위해서는 고통 받는 유혼(流魂)을 달래는 공덕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어제에서 와서 내일로 가고 있습니다. 운회의 바퀴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귀한 공덕으로 승화시키며 여래의 일여(一如)한 모습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80이 넘는 나이이지만 아직 공부하는 끝이 없습니다. 철승을 앞뒤로 (一如의 境地) (一如眞隨)한 책들을 내고 판승을 맞아 문과 상좌들의 주선으로 <금강경오가해역강>을 묶어냈습니다. <금강경오가해역강>은 내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공부하고 천착(穿鑿)하였던 조선시대의 스님 합허득통(涵虛得通)의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論)>를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공부의 정리이기도 했던 것인데 책으로 묶고보니 부끄럼과 부끄러움이 교감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승사 강원(同學)이자 용곡대학의 일년 후배가 되는 전관용(全觀濤) 박사 사 조실스님이 이 책의 원고를 보고 기뻐해 주던 모습이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장부가 다생의 숙연(宿緣)으로 불은(佛恩)을 입어 불문(佛門)에 든 이상 해탈성불과 중생회향(衆生回向)에 무슨 목심(木心)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절인연은 혼탁한 중생계의 바깥을 막아 어려움이 있으니 이 현상도 아직 다 익지 못한 성불인연의 편린(片鱗)일뿐인가 싶습니다. 중단이 무엇이고 정화가 무엇이었는기마는 두어차례 한 중단의 중경 노릇을 한 것이나 문하와 상좌들의 빠짐없는 문안인사를 받은 것은 그간 살아온 길이 험되지않은 않았다는 격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 없는 배를 저어가며 구멍없는 짚대를 불어 그 묘한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법해(法海)가 온 하늘에 울렁이는 소식은 언제 들을 것인가.

정리=정성운 기자

나의 경전

대일경



허일범
진각대학 교수

<대일경>은 대승불교의 교리로부터 밀교와 수행법까지 총망라한 밀교경전으로 티베트나 네팔보다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더 잘 알려져 있다. <대일경>은 전체 7권 36품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경전의 명칭이 뜻하는 바는 대일여래(비로자나불)가 체험한 성불의 경지와 비로자나불이 나타내 보여주는 신변가지를 살리는 방광대승경 중의 가장 으뜸으로 곧 이경의 내용을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신변가지'는 부처님의 부사의한 위신력으로써 중생을 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은 7세기 중반쯤 서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이 경전은 인도 나란다대학에서 교리연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행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후 그 곳의 수행종인 다르마굽타아사리가 제자인 선무의아사리에게 전수하여 중국에 그

나는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고야산대학에 유학하여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경전을 연구하고 수행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대학원의 밀교 문화연구소와 수행자인 보리도량에서 자연스럽게 학과 행을 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때 수많은 밀교의 수행법중에서 대일경계통의 태장차례는 나에게 더 없는 관심거리였다. 그것은 불가사외아사리의 법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밀교학연구에서 학행을 겸비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그만큼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밀교경전은 문자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전체가 수행을 위한 방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도 전문수행자인 밀교전법아사리의 위치에 오르고나서 연구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티베트나 일본에서 밀교학을 연구하는

대일여래가 체험한 성불의 경지
적극적 자비행 강조한 밀교교학

법맥을 상승시켰다. 그때 선무의아사리라는 신라, 당나라, 인도네시아출신의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수행법의 전수와 더불어 <대일경>의 교리를 학습시켰다. 그들 중에서 신라 영묘사출신의 불가사의아사리는 <대일경>의 비로자나공양차례법을 전수받았다.

그 차례법은 <대일경>의 마지막부분인 제7권제에 해당하며 금강경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사의아사리는 <대일경>의 교리를 연구하면서 그 주석서를 집필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일경>과 <금강경정경> 계통의 수행법까지도 겸수한 인물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같이 인도 나란다에서 동북아시아에 전파된 현존 대일경계통의 공양차례법은 인도출신의 선무의아사리에 의해서 신라인에게 전해진 한국유일의 밀교계 수행법일 것이다.

현재 이 계통의 수행법은 중국이나 한국등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일본에서 그 법맥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경전에 의거하여 그 당시 불가사의아사리의 교학이나 수행법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일본밀교의 사도가행차제중 태장차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전원이 아사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학자이면서 수행자의 길을 동시에 걷는다. 밀교의 아사리들은 반복학습과 수행을 강조한다. 그것은 경전의 교리를 체질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불가사의아사리는 한국인으로서 공양차례법을 통하여 보리심과 대비심과 방편을 근간으로 한 <대일경>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한국밀교의 선구자였다.

그의 자작은 우리들에게 수행을 통하여 행위와 말과 의지의 불보살화를 가져올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과 자비와 힘을 통한 생명력 넘치는 구도자가 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밀교경전의 가치는 소극적 자비행이 아니라 자신이 배양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비행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 자제와 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일경>의 사상은 인도의 수많은 종교와 이슬람의 박해속에서도 그 맥을 유지하며 인도땅에서 최후의 날까지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사는게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뜻을 세우면 고생이 곧 수행이 됩니다”

르는 길은 선이다 경전이다 열반이다를 고집하는데 있지 않다는 신념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라 했습니다. 부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 나중에는 그 말을 버리고 마음을 취해 나의 불성을 닦아내는 것이 성불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이 진짜일 수도 없고 순서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자기의 그릇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 법당안 부처의 무릎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지 부처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구제해 주는 것들만 다름아닌 자신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이다. 그 불성을 드러내면 부처요 물어 두면 중생인 도리가 그것이다.

도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현재의 장원고등학교지요. 당시에는 승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승려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교사 노릇도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중에는 부신의 이런저런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절에서 법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전쟁이라고 특별한 수는 없는 시절이기도 했고 나 자신이 돈을 모으거나 살림살이를 융통하는 재주는 없는 터라 상경 이후에도 뜨내기 납승의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는 소위 '정화'라는 이름의 폭풍우가 몰아쳤고 나는 비구들의 반대편에 서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하자면 몇바이라

서 서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40년이 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고 한낱의 매연구름이 기세를 더해가는 세월을 보았고 변형이라는 이름 아래의 온갖 축제와 번영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흥분한 죄악과 인간상실의 뼈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고 공화국 앞의 숫자가 더해졌던가, 그 안에서 진동되는 역사의 메아리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절인연인가. 스스로를 구제하려 하지 않는 중생집단의 업보일 것인가, 부처를 그리워 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가르침을 받더라도 알맹이를 모르는 여러석승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

순수한 경변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범구, 각종불사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準備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수호를 위하여 안심지법 부평형지의 영험적 秘訣
을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정리해시오.
● 神祕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신축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준

전국 佛子가정에 1책씩 보시
합니다.(단체주문은 시절)
※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계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 회장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각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공부 서법회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0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점)조사원은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자연이 만든 명약 한봉의 명맥을 잇는
강원도 (토종꿀)

강원도는 지리산과 더불어 토종꿀의 유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피나무, 싸리나무, 엄나무등 꿀좋은 나무는 물론이고 당귀, 작약과 같은 약초가 풍성하다. 봄에 분봉한 꿀벌들이 가을까지 온산을 다니며 귀한 약초와 꽃나무등에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최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인연있는 분들에게 저가로 공급해 드립니다.

◆ 벌꿀상식 : 양봉의 경우 벌집은 진갈색, 아카시아 꿀은 연녹색등 선진구분이 있지만 토종 벌은 봄부터 여름까지 온갖 꽃과 나무를 훑기 때문에 대부분 짙은 먹물색이나 진갈색이다.
맛은 '맛잇한' 단맛 대신 쓸쓸한 여운이 남는것이 좋고 한다. 흔히 물을 부으면 왕관처럼 퍼진다니 불이 불어 진짜 꿀이라느니 하는 말은 속설에 불과하다.

구입문의 : 강원도 춘천 產地
0361)261-3048
●스님께서 직접 재배 보급합니다●

석불, 전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기능올림픽 수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